

일부 지역 여고생들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이정란* · 황은희†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Ego-Resilience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Jeong Ran Lee* · Eun Hee Hwang†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ego-resilience of girl's high school students.

Methods: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284 students from 4 girl's high schools. Data were collected on September, 2010 by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WIN 18.0 program.

Results: Sexual attitu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atisfaction level with school and teachers. Sexual behavio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satisfaction level with teachers,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experiences. The ego-resilience of the subjec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satisfaction level with school and teachers. An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s and ego-resilience respectively.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chool life and teachers have important duties to manage sexual issues of the girl stude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intervention program for the girl students to improve satisfaction level with school and teachers.

Key words: Sexual attitudes, Sexual behavior, Ego-Resilience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 됨

접 수 일 : 2011년 2월 13일, 수 정 일: 2011년 4월 20일, 채 택 일: 2011년 6월 13일

† 교신저자 : 황은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Tel: 063-850-6071, Fax: 063-850-6060, E-mail: ehh@wonkwang.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 원조교제, 임신과 낙태’에서부터 오늘날의 ‘성매매, 싱글맘, 싱글대디’는 청소년의 성문제를 대변하는 동시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시대가 현대화되고 발전적 일수록 인간의 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진다. 서구의 성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지속적인 성문화의 범람, 향락산업의 번성, 여과되지 않은 각종 대중매체의 노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음란물 등으로 성충동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성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성호르몬의 왕성한 분비와 2차 성징의 발현으로 성적 충동이 요란한 청소년의 경우 성에 대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개념의 확립이 필수적이다(김희경 등, 2009).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한인영 등, 2001). 또한 사춘기에 해당되는 이들에게 성(性)의 본질이나, 의미, 기능 등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제이다(이세희, 2005). 인생 전반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매우 극적인 특성을 갖는 청소년의 성이 특별히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이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성적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이를 건강하게 승화시키기보다는 죄책감이나 불안, 좌절감, 분노 등을 야기함으로써 음성적이고 일탈적인 성행동으로 전환될 우려가 높은 것이다(남미애, 2002).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기존 연구는 성태도, 성행동, 성지식에 관한 실태조사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규명 등이 있으며, 성태도와 성지식, 성별, 스트레스, 연령, 교우관계, 가족관계, 학교적응정도,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이세희, 2005; 김선자, 2006; 권선주, 2008; 윤혜인, 2009). 성태도는 개인이 학습에 의했거나 이미 습득된 성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즉 태도라는 말은 실리적 대상에 대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려는 경향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개념이라는(천귀순, 1996) 점에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성행동과 관련하여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위행위나 음란물 접촉 등의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결과로(한인영 등, 2001; 김선자, 2006), 성별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즉, 공격적인 남성의 성과 수동적인 여성의 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영향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에 각각의 성문제를 구분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Regan과 Berscheid(1995)가 청소년 성별에 따라 성적 욕구를 느끼는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여학생들은 사랑에 의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반면, 남학생들은 외모와 성적 환상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백경신과 정승교(2006)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가 남학생과 비슷한 수준이며, 음란물 접촉의 동기는 단순한 성적 호기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성문제 역시 남학생들의 성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아탄력성(Ego resilience)은 외적·내적 긴장원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성으로 낙천성, 자율성, 능동적

인 활동,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이 있다(송혜리, 2010).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압력을 완화시키는 성격적인 특성이나 환경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과의 관계 혹은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조계연과 이은희, 2007; 강창실, 2008). 실제로 권해수(2003)의 연구에 의하면 성학대 피해 청소년들에 있어 적응유연성(resilience)은 대처전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성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여자 고등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 그리고 자아탄력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여 여자 고등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성문제 중재방법과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와 성행동, 자아탄력성 수준을 파악한다.
4.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자 고등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 그리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전주시 지역 소재 4개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 1학년 중 3개 학급 임의표출하였고, 해당 학급에 재학 중인 여학생 28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해당 학교의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수업시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및 진행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연구 목적과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동의하는 사전동의서를 받아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만 설문지를 배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10-15분 가량 소요되었으며, 배부된 300부 중 291부를 회수하여 총 284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성태도

성태도는 하숙영(1998)과 조순희(2001)의 성태도 측정도구를 토대로 고등학생에 알맞게 수정, 보완한 황수찬(200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사춘기의 특성, 임신 및 피임, 이성교제, 성병, 성문제 및 성윤리의 총 25문항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8$ 이었다.

2) 성행동

성행동 측정은 이석재(1999)가 개발한 도구

를 이세희(2005)가 수정한 14문항의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지난 1년간 성행동 경험 정도'를 묻고, '아래의 행동을 해보았다'와 '아래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에 답하도록 하였으며, 각각 1점과 0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65$ 이었다.

3) 자아탄력성

체계의 유지나 증진을 위해서 환경 맥락이 요구하는 자기-통제 수준을 조정하는 역동적인 능력인 자아탄력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등(2004)이 번안 및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점에서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6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78$ 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PASW/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 특성 및 성태도, 성행동 그리고 자아탄력성 정도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태도와 성행동,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여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여자 고등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으며, 이를 특성별로 보면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41.2%, 가족 구성에서는 부모님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형태가 93.3%로 가장 많았으며, 가정형편은 62.7%가 보통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대상자가 54.2%, 선생님과 의 관계에서는 보통인 경우가 50.7%, 학교 성적은 중이 33.1%로 각각 가장 높았다. 과거 흡연 경험이 있는 자는 5.3%이었고, 음주 경험 유무에서는 '있다'가 51.1%이었으며, 이성 친구가 있는 여학생은 4.6%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84)	
특성	구분	n	%
종교	기독교	117	41.2
	천주교	24	8.5
	불교	13	4.6
	원불교	20	7.0
	무교	110	38.7
가족구성	부모님 모두 계심	265	93.3
	편부, 편모	15	5.3
	기타	4	1.4
가정형편	넉넉함	59	20.8
	보통	178	62.7
	어려움	47	16.5
학교생활만족도	만족함	154	54.2
	보통	114	40.1
	불만임	16	5.6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함	122	43.0
	보통	144	50.7
	불만임	18	6.3
학교성적	상	14	4.9
	중상	59	20.8
	중	94	33.1
	중하	82	28.9
	하	35	12.3
흡연 경험	과거 경험자	15	5.3
	현재 흡연자	2	0.7
	무경험자	267	94.0
음주 경험	유	145	51.1
	무	139	48.9
이성 친구	유	13	4.6
	무	271	95.4

2. 대상자의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정도

대상자의 성태도 정도는 전체 115점 만점에 평균 90.13점이었으며<표 2>, 성행동 정도는 전체 8점 만점에 평균 1.96점으로 나타났다<표 3>. 또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정도는 4점 만점

에 평균 2.89점으로 나타났다<표 4>.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표 2>와 같으며, 학교생활만족도와 선생님

과의 관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91.43점으로 보통인 88.54점 보다 높았다. 또한 선생님

과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91.49점으로 보통인 88.89점보다 높았다.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

(N=284)					
특성	구분	M±SD	t or F	p	Scheffe
전체 성태도 평균 점수		90.13±7.68			
종교	기독교	90.68±7.89	0.758	.553	
	천주교	90.25±5.86			
	불교	89.46±5.61			
	원불교	91.85±9.30			
	무교	89.28±7.70			
가족구성	부모님 모두 계심	90.22±7.80	0.472	.624	
	편부, 편모	89.40±5.87			
	기타	86.75±5.12			
가정형편	넉넉함	90.37±8.52	1.000	.369	
	보통	90.43±7.72			
	어려움	88.68±6.24			
학교생활만족도	만족함 a	91.43±7.76	4.996	.007	a>b
	보통 b	88.54±7.07			
	불만임 c	88.94±9.08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함 a	91.49±8.49	3.948	.020	a>b
	보통 b	88.89±6.60			
	불만임 c	90.78±8.64			
학교성적	상	94.79±10.09	2.099	.081	
	중상	91.27±8.47			
	중	89.67±7.51			
	중하	89.61±7.31			
	하	88.77±5.75			
흡연 경험	과거 경험자	93.13±7.80	1.217	.298	
	현재 흡연자	90.00±16.97			
	무경험자	89.96±7.61			
음주 경험	유	90.68±7.13	1.233	.219	
	무	89.55±8.20			
이성 친구	유	88.62±6.84	-0.726	.468	
	무	90.20±7.72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선생님과의 관계,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에 따라 성행동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과거 흡연 경험자가 3.73점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1.86점에 비해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2.34점으로 경험이 없는 대상자의 1.57점보다 높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

		(N=284)			
특성	구분	M±SD	t or F	p	Scheffe
전체 성행동 평균 점수		1.96±1.58			
종교	기독교	2.03±1.47	0.327	.860	
	천주교	1.96±1.78			
	불교	2.31±1.70			
	원불교	1.95±1.36			
	무교	1.85±1.69			
가족구성	부모님 모두 계심	1.99±1.60	0.771	.464	
	편부, 편모	1.53±1.30			
	기타	1.50±1.29			
가정형편	넉넉함	2.29±1.78	1.064	.203	
	보통	1.87±1.50			
	어려움	1.89±1.61			
학교생활만족도	만족함	2.08±1.63	0.984	.375	
	보통	1.84±1.57			
	불만임	1.69±1.14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함	2.11±1.62	3.443	.033	
	보통	1.75±1.48			
	불만임	2.61±1.88			
학교성적	상	2.29±2.09	1.062	.375	
	중상	1.86±1.54			
	중	2.19±1.80			
	중하	1.79±1.39			
	하	1.77±1.11			
흡연 경험	과거 경험자 a	3.73±2.28	10.646	.000	a>c
	현재 흡연자 b	2.00±1.41			
	무경험자 c	1.86±1.48			
음주 경험	유	2.34±1.68	4.241	.000	
	무	1.57±1.37			
이성 친구	유	2.77±1.30	1.896	.059	
	무	1.92±1.58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N=284)					
특성	구분	M±SD	t or F	p	Scheffe
전체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		2.89±0.47			
종교	기독교	2.86±0.47	2.291	.060	
	천주교	3.04±0.44			
	불교	3.05±0.38			
	원불교	3.06±0.39			
	무교	2.89±0.47			
가족구성	부모님 모두 계심	2.90±0.47	1.215	.298	
	편부, 편모	2.73±0.48			
	기타	2.71±0.29			
가정형편	넉넉함	2.94±0.44	1.105	.333	
	보통	2.89±0.47			
	어려움	2.81±0.49			
학교생활만족도	만족함 a	3.04±0.43	19.729	.000	a>b,c
	보통 b	2.73±0.44			
	불만임 c	2.59±0.49			
선생님과의 관계	만족 a	3.03±0.44	10.021	.000	a>b
	보통 b	2.78±0.46			
	불만 c	2.83±0.49			
학교성적	상	3.03±0.47	1.390	.238	
	중상	2.85±0.41			
	중	2.96±0.45			
	중하	2.85±0.49			
	하	2.80±0.47			
흡연 경험	과거 경험자	2.95±0.48	0.192	.826	
	현재 흡연자	3.00±0.30			
	무경험자	2.88±0.47			
음주 경험	유	2.93±0.44	1.682	.094	
	무	2.84±0.50			
이성 친구	유	3.11±0.39	1.758	.080	
	무	2.88±0.47			

<표 5>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변인	(N=284)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r(p)$	
성태도	1.000	.288(.000)	.195(.001)
성행동		1.000	.160(.007)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표 4>와 같으며, 학교생활만족도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학교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대상자는 3.04점으로 보통인 대상자의 2.73점과 불만인 대상자의 2.59점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선생님과의 관계에 매우 만족, 만족한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3.03점으로 보통인 대상자의 2.78점보다 자아탄력성 점수가 더 높았다.

6.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간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태도, 성행동,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성태도와 성행동($r=.288, p=.000$), 성태도와 자아탄력성($r=.195, p=.001$), 성행동과 자아탄력성($r=.160, p=.007$)은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일부 지역 여자 고등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 그리고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 중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과거 경험자 5.3%, 현재 흡연자 0.7%로 총

6.0%이었는데, 이는 10대 여성의 흡연 경험을 10.4%(최소영 등, 2004), 여고생의 12.0%(손애리, 2010),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흡연 경험률 15.0%(남영옥과 윤혜미, 2007)보다 낮은 결과이다. 청소년의 흡연 경험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한다는 점과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흡연률이 낮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대상인 본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질병관리본부, 2010)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흡연율이 2005년 12.5%, 2007년 10%에서 2009년 9.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이 본 연구 대상자의 낮은 흡연율을 설명해 준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중 음주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51.1%이었는데, 이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음주 경험율 54.5%(남영옥과 윤혜미, 2007), 10대 여성의 음주 경험율 60.4%(최소영 등, 2004)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차 증가하지만, 흡연과 달리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없었던 연구 결과(남영옥과 윤혜미, 2007)를 통해 뒷받침될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 연구 결과를 고찰해 본 결과, 여자 고등학생들에게 흡연보다는 음주가 상대적으로 더 보편적이었으며, 이는 술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고 관대한 문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손애리, 2010).

본 연구 대상자 중 이성친구가 있는 대상자는 4.6%이었는데, 이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신영(2005) 연구의 56.5%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신정과 양순옥(2004) 연구의 10.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여학생이라는 것에 일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이성 친구 교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는 110점 중 90.1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가 68점 중 43.0점으로 나타난 연구(배경의와 강양희, 2007)와 비교해 볼 때, 여자 고등학생이 대상인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가 더 긍정적인 즉,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성태도를 갖는 것은 권선주(200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해 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학교 생활과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가 보통인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성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적응정도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권선주(2008)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본 연구 대상자의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질병관리본부, 2010)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5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것이며, 주요 관심사인 성태도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행동은 평균 1.96점이었는데, 이는 14개 성행동 중 평균 1.96개의 성행동을 해본 것을 의미한다.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에 관한 김혜원(2003)의 연구에서 여학생들

이 평균 1.24개의 성행동을 경험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더 높아 성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남학생은 평균 2.09개의 성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행동이 더 많은 것은 대상자의 학년 분포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김혜원(2003)의 연구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2, 3학년은 1학년에 비해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에 더 몰입할 것이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1학년 학생이 성행동을 더 많이 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학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와 그 영향 요인에 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선생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대상자, 흡연 경험이 있는 대상자, 음주 경험이 있는 자가 유의하게 성행동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에 따라 성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 권선주(2008)의 연구 결과, 그리고 음주 및 흡연 경험자가 성행동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 최소영 등(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흡연과 음주가 성허용성과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권혜진 등(2006)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인들 역시 성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평균 점수는 2.89점이었고, 이는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윤경란(2006)의 연구 결과로 제시된 여고생의 2.88점, 남고생의 2.79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학교생활만족도와 선생님과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위험한 환경 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는 보이는 것, 급성 또는 만성적인 주요 생활 스트레스 요인에 대처하는 유능한

기능,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으로 분류하여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다(Masten 등, 1991).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이나 선생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이수현과 최해림(2007)의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흡연 경험과 음주 경험, 그리고 이성 친구 유무에 따른 자아탄력성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집단별 점수 수준이 비슷하여, 앞서 제시한 자아탄력성의 문제행동에 대한 매개역할을 확인할 수 없었다. 추후 이에 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태도와 성행동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질수록 성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배경의와 강양희, 200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대상자는 긍정적인 성태도를 가지며 성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관계 선행 연구가 없어 이러한 결과에 대한 비교·해석이 어렵지만, 성학대 피해 청소년들을 위한 전략으로 적응유연성을 증진시켜야 함을 제시한 권해수(2003)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반복적인 검증 연구가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지역 여자 고등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 그리고 자아탄력성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파악하여 여자 고등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인 성문제 중재방법과 프로그램 개

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여자 고등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은 남자 고등학생들과 유사한 수준에 있었고, 음주와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이 관련 요인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학교 보건교사의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었으며, 학교생활만족도나 선생님과의 관계와 같은 학교생활요인이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여고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재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의 역할이 청소년의 성문제에 있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의 성행동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성행동의 차이를 비교,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추후 연구 시행을 제안한다.

셋째, 청소년의 성문제에 있어 학교 교사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심층 연구를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성행동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을 감안하여 이를 보완한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강창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공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 권선주. 청소년의 학교적응 정도에 따른 성의식, 성태도, 성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3. 권혜수.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 홍익대학교 대학원, 2003.
4. 권혜진 외 5명. 남자 중학생의 성허용성, 성태도 및 성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2006;15(1):99-108.
5. 김선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금산: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2006.
6. 김신영. 청소년 성행동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2005;12(2):120-140.
7. 김신정, 양순옥.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아동간호학회지 2004;10(3):350-360.
8. 김혜원.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03;15(2):309-328.
9. 김희경, 이현주, 박보림, 김향수, 림금란. 청소년을 위한 성 허용성 개념분석.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2009;10(2):69-83.
10. 남미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2002;21(2):127-151.
11. 남영옥, 윤혜미. 청소년의 환경적 위협과 자아탄력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007;14(2):93-111.
12. 배경의, 강양희.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2007;10(1):36-47.
13. 백경신, 정승교. 일 지역 여고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실태, 성지식, 성태도 및 관련 요인 조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006;17(3):376-386.
14. 손애리. 서울시 청소년의 흡연, 음주 및 성행동.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010;11(1):77-87.
15. 송혜리.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경험 및 자아탄력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16.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교육심리연구 2004;18(1):393-408.
17. 윤경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석사학위논문]. 창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6.
18. 윤혜인.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가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논산: 건양대학교 대학원, 2009.
19. 이석재. 강간통념적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999;13(2):131-148.
20. 이세희.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석사학위논문]. 서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5.
21. 이수현, 최해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 형태, 자아탄력성,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2007;19(2):321-337.
22. 조계연, 이은희.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007;18(1):79-106.
23. 조순희. 남자 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24. 질병관리본부. 제5차(200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서울: 질병관리본부, 2010.
25. 천귀순. 초등학생의 성태도 및 성관련 학습

- 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6.
26. 최소영, 김영혜, 오현숙. 10대 여성의 성행동, 임신실태 및 피임지식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10(1):42-50.
27. 하숙영. 성교육이 여자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28.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001;12(1):138-148.
29. 황수찬. 고등학생의 성, 학년, 계열이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논문]. 대전: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30. Block J, Kremen A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6;70(2):349-361.
31. Masten AS, Best KM, Garmezy N.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91;2:425-444.
32. Regan PC, Berscheid E. Gender differences in beliefs about the causes of male and female sexual desire. *Personal Relationships* 1995;2:345-358.